

전주매일

금연상담전화 | 1833-9030

전라북도 익산시 무왕로 895신동동 344-21 한광대학교병원 5층 1호
TEL: (063) 859-2400 ~ 2410 FAX: (063) 859-2414

비수술적 척추관절 류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18년 12월 10일 월요일 (음 11월 4일) 제2187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2019년도 전북도 국가 예산 확보 기자회견이 지난 8일 전북도청 브리핑룸에서 실시된 가운데 송하진 전북도지사와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 정운천 바른미래당 전북도당위원장, 김승일 행정부지사, 최정호 정무부지사가 참석해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전북도, 국가예산 7조원 시대 열다

7조328억원으로 전년보다 4643억원 ↑

새만금 SOC 예산 1조1186억원 확보로 최초 1조 돌파
내부개발 · 2023 세계잼버리 성공개최 견인 기대 커
수상태양광 종합평가센터 구축 등 신규사업비 확보
반영 불확실 새만금 산단 임대용지 조성 등도 큰 의미

전북도 국가예산이 역대 최대인 7조원을 돌파했다.

특히 새만금 관련 예산이 최초로 1조원을 넘김으로써 국가예산과 전북도 예산이 동시에 7조원을 돌파하는 쾌거를 이뤘다.

지난 8일 오전 송하진 전북도지사와 지역 국회의원은 전북도청에서 2019년 국가예산 확보상황을 위한 기자회견을 열고 "이날 국회를 통과한 전북도 국가예산은 2018년 대비 4643억원이 증가한 7조328억원 이다"며 "2016년 6조원 시대에서 3년만에 7조원 시대를 이뤄낸 것으로 전북 대도역 시대

를 열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날 브리핑에는 송하진 도지사를 비롯해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 정운천 바른미래당 전북도당위원장 등이 함께 했다.

송하진 도지사는 먼저 이번 전북도 국가예산의 확보상황에 대한 총평에서 "의미있는 신규사업 예산을 대거 확보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실제 수상태양광 종합평가센터 구축(20억원), 친환경 고기능 상용특장부품 고도화사업(45억원) 등 신규사업 2706억원을 확보했다.

이어 정부부처가 마지막까지 어려워 반영이 불확실했으나 도와 정치권, 시군의 노력으로 국회단계에서 반영된 새만금산단단지 임대용지 조성(272억원), 전북권 대기오염 집중 축소 시설(500억원) 등도 의미가 크다는 분석이다.

특히 새만금 예산 1조원 돌파로 새만금 내부개발은 물론 2023 세계잼버리 성공개최에 견인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 국회 예정위 예산안조정소위원회로 활동한 정운천 바른미래당 도당위원장은 "일부 당의 새만금 예산 삭감 주장에 대해 2022년까지 완료해야 할 국가사업의 삭감은 말도 안 된다"고 설득, 오히려 9000억원에서 1조1000억원대로 증액했다고 소회를 밝혔다.

안호영 민주당 도당위원장도 "전북

도가 수소분야의 새로운 거점을 확보하는데 의미를 두고 싶다"며 그간의 활동을 정리했다.

다만 기대했던 새만금국제공항 기본설계용역비는 반영되지 않은 것과 관련, 송 지사는 "예타면제를 전제로 국가균형발전 기반구축사업이 진행되고 있어 이번 국가예산에는 빠지게 됐다"면서 "통과를 위한 8부 능선에 잠시 멈춰있지만 반드시 예타면제를 이루도록 하겠다"고 선언했다.

송하진 도지사는 "내년 7조원 규모의 전북도 국가예산은 도가 최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고 절망의 산업화 시대를 이겨내는 청년전북으로 나가는 변화의 씨앗을 뿌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그동안 애써준 모든 관계자와 특히 도민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새만금 시대 새로운 시작

새만금개발청 현장 이전

군산 오식도동 소재 산단 홍보전시관동으로
150명이 상주 근무 · 기본계획 수립 등 수행

새만금개발청이 지난 7일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산업단지 홍보전시관동(군산 오식도동 소재)으로 이전했다.

청사는 지난 9월 21일 문을 연 새만금개발공사 옆 건물에 마련했으며, 새만금개발공사와 함께 현장 중심 개발 추진 동력이 마련된 것이다.

특히, 새만금개발청 150여명이 상주 근무를 하게 된다.

새만금개발청은 2013년 9월 세종시에 청사 개청이후 지속적으로 새만금 현장 청사 이전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2016년 4월 청사 이전 기본구상 용역 추진을 시작으로 같은 해 6월 민관합동 '청사이전 추진위원회' 구성 운영하면서 가시화 되는 듯 했으나 계속 미뤄져왔다.

그러나 올 3월 국토교통부 장관이 새만금 현장 방문시 새만금청 연내 현장 이전을 발표하고 5월 제20차 '새만금위원회'에서 새만금 사업지역으로 이전이 결정됐다.

새만금개발청은 기본계획 수립, 각종 인허가 등 행정업무를 수행하며, 기반시설(동서남북도로 등) 건설 등 인프라 확충과 도시행정 업무를 담당한다. /김진성 기자

원광대 신임 총장에 박맹수 교수

23일부터 임기 시작

학교법인 원광학원(이사장 신명국)은 최근 이사회를 통해 박맹수(사진) 원불교학과 교수를 원광대학교 제13대 총장으로 선임했다.

원광학원은 원광대학교를 글로벌 명문사학으로 도약시킬 새로운 총장 초빙을 위한 공모를 지난 8월 24일 시작해 9월 19일 접수를 마감한 결과 석승한, 박성태, 박맹수, 김인중, 이강래 교수 등 교내인사 4명과 교외인사 1명을 포함해 총 5명이 공모에 응했다.(접수순)

이후 15인으로 구성된 총장후보자평가위원회에서는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거쳐 공개토론 대상으로 석승한, 박성태, 박맹수, 이강래 교수를 선정했다.

또한, 원광대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후보자들의 경영계획에 대한 3차례의 공개토론 및 구성원 의견 수렴을 거쳐 후보자 평가 결과서를 채택해 원광학원 이사회에 제출했다.

원광학원은 총장후보자평가위원회의 후보자 평가 결과서를 접수



한 후 이사회를 소집하고, 이사회에서는 6일 총장후보자에 대한 인터뷰를 거친 후 박맹수 교수를 임기 4년

(2018.12.23 ~ 2022.12.22)의 원광대학교 제13대 총장에 선임했으며, 교육부 보고 절차를 거쳐 취임식이 진행될 예정이다.

박 차기 총장은 원불교 교무로서 2003년 원불교학과 교수로 임용돼 학생복지처 처장, 원불교사상연구원 원장 등을 역임했으며, 한국근대사학회 회장, 모심과살림연구소 소장, 동북아역사재단 자문위원 등 다양한 대외활동을 펼쳐왔다.

대학경영계획서를 통해 '세계 유일의 글로벌 마인드 대학'을 내건 박 차기 총장은 원광대의 위기극복과 지역사회 소통을 내세운 비전 제시와 함께 제2캠퍼스 추진, 통일대비 교육시스템 구축, 발전기금 조성 등을 강조했다. /익산=우병희 기자

메일 INDEX

- 3면 - 정기국회 '유치원 3법' 처리 무산
- 4면 - 전북지역 총경 승진 후보 '관심사'